

인류의 진화론에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기어다닌다면 현대인의 요통이란 질병은 영원히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동물학자들은 네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요통의 주원인이 되는 수핵탈출증상은 없다고 한다. 즉 우리 인체의 골격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두발할 것도 없이 척추뼈이다. 조물주께서 인간이 서서 걸을 수 있고 또는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각 척추골과 척추골 사이에 마치 기계 조립시에 서로 마찰을 피하고 원만히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사용되는 박킹과같이 연골판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서로의 척추골을 보호하고 있다. 이 척추간판탈출증의 발생부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운동이 가장 많은 부위, 즉 허리부위와 목부위이다. 그래서 실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제 4, 5 요추간판 부위 또는 제 5 요추와 제 1 천골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다음에 경추골 부위에서 수핵탈출증이 흔히 나타난다.

경근 압박증상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두면 다리근육이 위축 내지는 가늘어지고 마침내 마비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진단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발병경위 및 병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병력과 신경학적 제반검사 즉 운동계 및 감각계 검사와 근전도 검사 요추골 X-선 검사 등이 있으며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환자에 있어서의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은 척수조영술과 척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여 거의 95% 이상 확진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전산화적 추단층촬영이 국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에겐 전혀 고통을 주지않고 편안한 자세에서 척추변부위를 전산화촬영함으로써 신경공, 신경

중상·진단방법및치료대책

좌골신경痛

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추간판탈출증환자에 대하여 본방법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으나, 중년층이상 노인층에서는 디스크탈출이외에 척추궁 및 척추신경공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주사 치료법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① 급성 수술요법의 적응증으로 추간판연골 조직이 척추강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마미총)을 압박하여 하지마비 및 배뇨불능을 유발하는 응급수술을 요하며.

② 신경근의 압박증상으로 인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하여지고 근력약화 및 위축 내지 마비증상이 초래되고 동통이 극히 심할 경우.

③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재발이 빈번하고 오랫동안 안정요법을 시행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이 동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의 예후에 있어서는 경한 초기증상에는 대증요법으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술한수술의 적응증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만이 완쾌될 수 있다.

디스크內에 카이모파파인注入法 치료효과키

다른 원인으로서는 나이들며 요추간판탈출증의 제일 중요한 증상 및 증후는 심한 요통과 편측 또는 양측 하지로 방사되는 방사통인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흔히 좌골신

경근, 추간판연골판을 뚜렷히 구별할 수 있게되었으며 연골판에 의하여 신경근의 압박정도를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서임

되고 있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추간판탈출증환자에 대하여 본방법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으나, 중년층이상 노인층에서는 디스크탈출이외에 척추궁 및 척추신경공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주사 치료법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① 급성 수술요법의 적응증으로 추간판연골 조직이 척추강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마미총)을 압박하여 하지마비 및 배뇨불능을 유발하는 응급수술을 요하며.

② 신경근의 압박증상으로 인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하여지고 근력약화 및 위축 내지 마비증상이 초래되고 동통이 극히 심할 경우.

③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재발이 빈번하고 오랫동안 안정요법을 시행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이 동통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의 예후에 있어서는 경한 초기증상에는 대증요법으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술한수술의 적응증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만이 완쾌될 수 있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있어서는 허리가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심히 굽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심히 옆으로 굽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골판탈출로 인한 신

경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으나 이는 하나의 증상에만 한 용어에 불과하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전술한 원인에 의하여 추간판연골조직이 탈출되거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병발되는 척추간신경공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변성으로 인한 신경공로 인하여 척추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해당 신경근 주행에 따라 심한 동통과 지각이상 및 운동마비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급성으로 연골판이 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시키는 하지의 근력약화 및 마비 증상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는 배뇨불능 및 성기능 장애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있어서는 허리가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심히 굽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심히 옆으로 굽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골판탈출로 인한 신

경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으나 이는 하나의 증상에만 한 용어에 불과하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전술한 원인에 의하여 추간판연골조직이 탈출되거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병발되는 척추간신경공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변성으로 인한 신경공로 인하여 척추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해당 신경근 주행에 따라 심한 동통과 지각이상 및 운동마비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급성으로 연골판이 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시키는 하지의 근력약화 및 마비 증상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는 배뇨불능 및 성기능 장애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있어서는 허리가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심히 굽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심히 옆으로 굽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골판탈출로 인한 신

경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으나 이는 하나의 증상에만 한 용어에 불과하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전술한 원인에 의하여 추간판연골조직이 탈출되거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병발되는 척추간신경공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변성으로 인한 신경공로 인하여 척추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해당 신경근 주행에 따라 심한 동통과 지각이상 및 운동마비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급성으로 연골판이 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시키는 하지의 근력약화 및 마비 증상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는 배뇨불능 및 성기능 장애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 있어서는 허리가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심히 굽은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는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심히 옆으로 굽은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것까지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골판탈출로 인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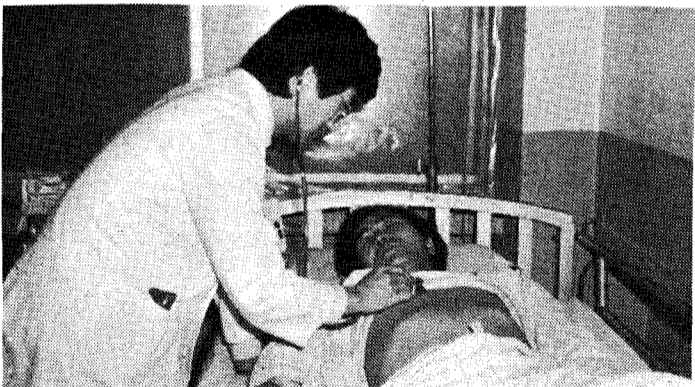
경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으나 이는 하나의 증상에만 한 용어에 불과하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전술한 원인에 의하여 추간판연골조직이 탈출되거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병발되는 척추간신경공 협착증이라든지 또는 변성으로 인한 신경공로 인하여 척추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해당 신경근 주행에 따라 심한 동통과 지각이상 및 운동마비까지 초래할 수가 있다. 특히 급성으로 연골판이 중심부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시키는 하지의 근력약화 및 마비 증상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는 배뇨불능 및 성기능 장애까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



姜俊基 <가톨릭醫大> 신경외과학교수

요통의 주 원인이 되는 요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경우가 외상으로 인하여 이중 흔히 무거운 짐을 갑자기 들어 올리거나 또는 운동수수가 갑자기 체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직접 외상으로 인하여요추부에 타박을 받았을 경우에 척추골사이의 연골판이 후방 또는 측방 또는 중심부로 탈출되어 주위 신경근을 압박한다

◆증상 및 증후◆



◆최근척추간판 수핵내 注射치료법으로 디스크內 카이모파파인 효소제 주입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사진은 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우리손으로 개발!

우리 技術, 우리 原料로 만든 B型 肝炎 백신

헤파박스[®]-B